

지역 소식통

완주 생활보장위원회
위기가구 보장 결정 의결

완주군이 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위기가구를 결정했다. 27일 완주군은 본청 소회의실에서 제6차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개최된 심의회의에서는 지난 4월과 5월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에 대한 본위원회 사후 보고건과 부양 의무자 부양개부·기피 가구에 심의건, 자활기금의 사용과 대여 심의건, 자활사업 참여자의 참여기간 연장 건, 긴급복지지원 건을 심의했다.

이에 30가구(32명)에 대한 보장결정을 각각 의결 처리하면서 위기가구들이 신속한 지원을 받게 됐다.

완주군 생활보장위원회는 관내의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 군의회 의원, 대학교수, 관계 공무원 등 14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생활보장사업 관련 계획, 위기가구에 대한 보장 등의 안건을 신속하고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매달 개최 운영하고 있다. /지방부장

김제 자원봉사센터

자봉 수요처 관리자 교육

김제시 자원봉사센터(센터장 남궁행원)는 최근 고용복지 공동교육관에서 자원봉사 수요처 관리자 20여명을 대상으로 2023 제2차 자원봉사 수요처 관리자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자원봉사센터와 수요처의 상호교류를 통한 협조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수요처 준수사항 및 1365 자원봉사포털 사용법에 대해 안내하고 수요처별 자원봉사자 운영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남궁행원 센터장은 "앞으로도 연 2회 이상 수요처 관리자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수요처 관리자들의 전문성을 제고시키고 1365 자원봉사 포털을 통한 자원봉사자 운영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정성주 시장, 민선8기 1년 맞아

“새 김제 성공시대 이끌 것”

예산 1조원 시대 개막 등
그동안의 소회 밝혀

“자(私)를 버리고 공(公)을 위하여 함께 일한다는 극기봉공(克己奉公)의 자세로 언제나 시민만을 바라보며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이 행복한 김제를 만들겠습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민선8기 1주년을 맞아 28일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개최하고 시장의 주요성과와 새로운 김제 성공시대를 이끌 비전들을 발표했다.

먼저 그간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 해주신 시민들과 성실하게 맡은바 업무를 수행해 온 공직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제시장으로서 지난 1년을 돌아보면 힘없이 달려온 1년이었고 무엇보다도 시민들께 김제시민이라는 자부심을 드리고 한 1년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리고 민선8기 1년동안 일궈낸 주요성과로, 2023년 국가예산 1조원 시대 개막에 이어 지난 5월 31일 기준 2024년 국가예산 중앙부처 단계 반영액 1조7,441억원과, 지난 3월 15일, 김제시-주식회사 HR EXH-미국 MBC간 건설장비 10억불(1조3,000억원) 수출업무협약 체결과 5억불(6,500억원)의



정성주 김제시장(사진 왼쪽)은 민선8기 1주년을 맞아 28일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개최하고 시장의 주요성과와 새로운 김제 성공시대를 이끌 비전들을 발표했다.

수출 분계약 체결이라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제시했다.

특히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김제시 인구가 지난해 6월 말 8만1881명에서, 12월말 8만1,458명, 지난달 말 8만1,888명 등 전년 6월말 대비 1,022명이 늘었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시도된 김제 꽃빛드라추제와 김제 문화의 날 행사는 신선하고생동감 넘치는 기획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어우러져 축제

의 새로운 발전가능성을 제시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1년전 오늘 민선8기 김제시장이라는 두려움과 책임감 앞에서 시민의 뜻을 가슴깊이 새기며 시장으로서 책임과 소명을 다할 것을 엄숙히 약속했다면서, 지금까지의 성과와 변화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없는 담대한 의지로 지속가능한 김제의 내일을 위해 변화의 씨앗을 뿌리고 희망을 키워나갈 것이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수발아 위험 대비 가루쌀 적기 이앙을”

김제농기센터 “늦어도 7월 5일까지 해야”

김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에서는 쌀 공급과잉 문제 해결 및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가루쌀 재배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기상이변에 따른 수발아 발생 예방을 위해 늦어도 7월 5일까지 적기이앙을 당부했다.

김제시는 전국 최대 가루쌀 재배지역으로 가루쌀 생산단지 5개소 274ha를 조성하였고, 한국농업진흥원과 연계된 재종단지 2개소 26ha 농촌진

흥청 시범단지 1개소 10ha를 조성하여 재배할 계획이다.

가루쌀은 등숙기 온도에 민감하여 수량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일반벼와 같이 일찍 이앙하면 일찍 출수하여 고온기에 등숙이 되어 수량이 22%까지 감소할 수 있고 너무 늦게 이앙하면 생육기간이 너무 짧아 분얼이 적어져 수량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

우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가루쌀은 수발아에 취약해 등숙기 잦은 강우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앙시기를 일찍이앙하는 게 좋다.

이승중 기술보급과장은 “일반벼와 다른 가루쌀의 재배특성을 고려해서 시기별 농업인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양한 시기별 보급을 통해 쌀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술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폐기물 관리 역량 강화... 김제시, ‘올바로 시스템’ 실습 교육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폐기물 업체와 폐기물 배출 사업장의 폐기물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올바로 시스템 실습 교육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관내 폐기물 관련 사업장 39개소를 대상으로 폐기물 관리 실

무 역량을 키우기 위한 내용으로 진행되었으며, 단순 이론 위주의 강의가 아닌 올바로 시스템에 직접 로그인한 후 전자인계서를 작성하는 등 실습 위주로 진행됐다.

올바로 시스템은 폐기물의 적정 관

리를 위해 배출에서 운반·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인터넷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시 청소지원과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폐기물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으며, 환경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영세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사업 접수

김제시, 내달 14일까지... 소상공 경영안정 도모

김제시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사업’ 접수를 6월 26일부터 7월 14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추경 예산에 1억 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하였으며, 선정된 업체는 2년간 임차료의 50%(월 최대 25만 원)를 지원받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김제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로 △관내 6개월 이상 빈 점포를 임차해 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18세 미만 2자녀 이상

소상공인 △전년도 연매출 8천만 원 이하인 소상공인 △생애 첫 창업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초기 창업자이다.

신청방법은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김제시청 경제진흥과(☎ 063-540-3986)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사업은 경영유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이다”라며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은 지난 27일 남북교류협력위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제1차 완주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완주군 ‘남북 평화교류 지속’

‘제3기 협력위원’ 위촉

완주군이 남북 평화를 위해 나선다. 지난 27일 완주군은 위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제1차 완주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열었다.

완주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남북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심의 및 자문기구로, 지난 2019년 5월에 제1기 완주군 남북교류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남북교류와 관련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활동해 왔다.

이날 회의에 앞서 제3기 완주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들의 위촉장 수여식이 진행됐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위촉식에서 “경색된 남북관계로 남북교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논의는 지속되어야 한다”며 “향후 한반도에 다시 평화의 시대가 올 때, 완주군이 남북교류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리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장인 문성철 부군수의 주재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2022년 완주군 남북교류협력기금 결산(안) △2022년 완주군 남북교류협력기금 성과 분석(안) △완주군 남북교류협력기금 존속기한 연장(안)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2019년부터 조성해 올해 말로 존속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던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출석위원 만장일치 동의로 2028년 말까지 존속기한이 5년 연장돼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으로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완주군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존속기한 연장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활발히 발굴·추진할 방침이다.

/지방부장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
www.jjmaeil.com에서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